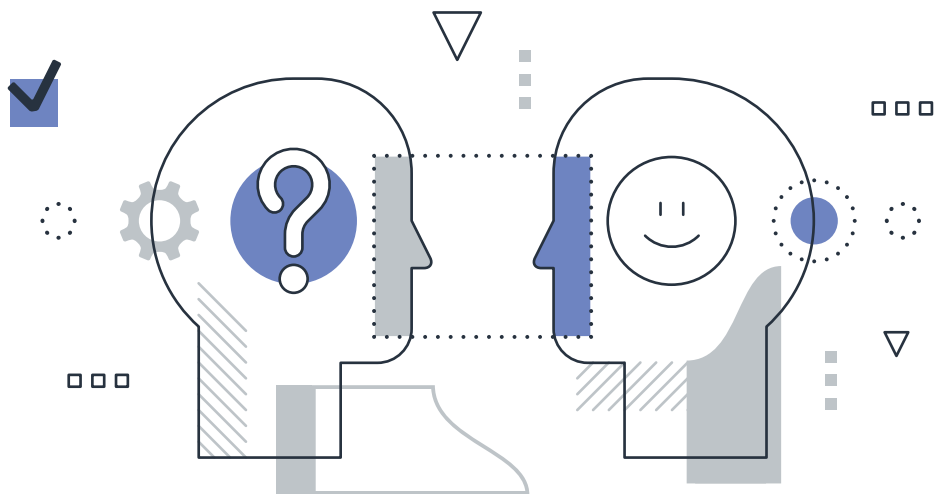




당신에게 시간을 나누어 드립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나눈 우리의 이야기

글. 이용학 EBS 기술기획부

“저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물리치료만 떠올리던 초등학생 때의 나는, 장래희망 발표시간에 반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통령, 과학자, 경찰이 되고 싶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좀 특별한 단어로 내 미래를 포장한 것 같아서 뿌듯해했던 것 같다. 중학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과학 공부를 하고 나서야 물리학자는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과학자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고. 어찌 보면 귀여운 허세(?)를 부렸던 지난날을 돌아보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진로, 나의 미래, 나의 롤 모델을 꾸려왔던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 싶어서다.

얼마 전, 모교 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진로 멘토링 행사에 다녀왔다. 좋은 마음으로 의미 있는 추억을 얻어오고 나니, 지면으로라도 그날의 기억을 나누고 혹여나 비슷한 행사에 참여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다. 동료가 내 사례와 준비를 참고한 다음 더 나은 멘토링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반갑습니다

특별했던 만남의 시작

행사는 가을이 깊이 물들어가던 날에 개최됐지만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루어졌다. 동문회 차원에서 3개월 전부터 멘토들을 모집했고 9월 초부터는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방역지침



고즈넉한 고목이 어울리는 교내 풍경

준수 하에 조심스럽게 준비되었다.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도 수십 명의 멘토들이 기꺼이 참여했다. 매번 느끼지만 이런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문들의 모습을 보며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지와 멘토로 참여하는 선배들의 면면을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받는다.

나의 멘토링 행사 참여는 이번이 세 번째다.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신 선배의 권유로 처음 발을 들이게 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셨는데, 본인에게 갚기보다는 또 다른 내리사랑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하셨다) 일정이 가능할 때마다 매번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곳이 방송국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은 직종이라 이런 행사의 인원 구성에 그럭저럭 도움이 되는 모양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멘토링 행사는 정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상 학생들에게 많은 간접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물론 특정 직업군에 수요가 몰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벤트야말로 소수의 관심에도 응답해줄 수 있어야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실 법학과의·약학 쪽에 많은 동문들이 포진해 있어 이 분야의 멘토들이 많고 또 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도 높아서 아주 약간은 소외감 비슷한 것을 느끼기도 했는데 나는 나대로 확실한 자부심이 있다. 내가 방송 엔지니어라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벌써 6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선배

배가 함께한다. 의학, 약학, 법학, 교수, 경영, 군인, 경찰, 개인사업, 건축, 금융, IT, 공학, 교육, 음악, 바이오, 공무원, 어학, 세일즈, 방송, 작가, 기자, 요즘 각광받는 크리에이터까지 참여하며 멘토들끼리도 배우고 싶을 정도의 풀을 자랑한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임 자체가 크게 위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사 후에 멘토들끼리 교류하는 장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서 내심 아쉽기도 했다. 아무래도 이런 네트워크가 나름 멘토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도 하니까. 때로 시너지를 내는 계기도 되고. 어쨌든 주관하는 단체의 지원으로 교통편과 식사 등이 편하게 마련되어 멘토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콘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출발 당일, 고속터미널 부근에 준비된 전세버스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집과 회사가 가깝다 보니 새벽 공기를 마시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오랜만이었는데 들숨의 맛이 알싸했다. 당일 새벽까지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정리하다가 침대에 늦게 누워서 그런지 전세버스에 오르자마자 등받이에 몸을 한껏 기댔다. 버스를 타면서 체온을 재고 기록하며 명단을 봤을 때 반가운 이름들이 꽤 보이길래 하나, 둘 도착할 때마다 가볍게 인사하고 간단히 안부를 묻고는 흘러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추억이 묻어있는 곳은 늘 정겹다. 특히 수년씩 시간을 함께한 학교들은 특히 더 정감이 가고. 3년간 울고, 웃으며 많은



학교 전경

사람들과 어울렸던 내 학교는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처럼 든든하고 반갑다. 버스가 도착하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마중을 나와 반겨주셨다. 마침 지금 교장 선생님은 내가 3학년 때 믿고 따르던 담임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더 반가웠다. 버스에 싣고 온, 동문회에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간식과 선물을 나르고 잠시 학교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내가 다니던 때보다 시설들이 몰라보게 좋아졌고, 고목들의 고즈넉함은 더욱 깊어져 풍경은 더 멋들어져 있었다. 이어 교무실에 들러 담당 선생님께 부탁해 준비해온 자료들을 인쇄해서 행사장인 강당으로 갔다. 훗날 본 교무실 내 방송장비들에 관심이 갔던 건 아마도 직업병일거다. 강당에 들어서니 멘티들인 2학년 학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고 학생들이 만든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통통 튀는 요즘 아이들의 끼가 잔뜩 묻은 영상들을 보고 있으니 피식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다.

국민의례, 교장 선생님 인사, 총동문회장님의 인사, 2학년 대표학생의 편지 낭독 등의 개회식이 지나고 곧이어 본격적으로 멘토링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두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분야별로 강당 및 각 반으로 흩어져 모였다. 내가 아이들과 만나는 곳은 ‘강당 안’이었고, 나의 1부엔 3명이 배정되었는데,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이 끼어 있었다. 진지한 눈빛으로 초롱초롱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기특했다. 내 이름과 기수, 분야가 적힌 플라스틱 스탠드를 한 번 쓰다듬고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다.

내가 꼭꼭 눌러 담아온 이야기

내가 준비한 주제는, ‘방송 그리고 자기계발’이었다. 방송국에서 일한 지도 벌써 7년이 다 된 나는 그동안 방송 엔지니어로서 기획, 편집, 음향을 다루며 프로그램 제작과 콘텐츠 산업에 대해 연구하면서 소소하게 성장하고 있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것이 많아 유용했고 회사 내에서 배울 점 많은 선배들의 모습을 어깨너머로 지켜보며 전문성과 열정을 배웠다. 그리고 연합회 활동을 통해 동종업계의 뛰어난 다른 회사 분들의 통찰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동기, 동료들과 막역하게 지내고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 비단 내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방송 제작의 실제 현장과 바깥에 비추어지는 모습, 방송계의 고민과 가능성 등에 대해 이곳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계발. 각자의 철학과 상황에 의해 무엇에 시간을 집중



교실 안 풍경





강당 안 풍경



학생들과 멘토링 중인 필자

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르겠지만 나는 자신의 최대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하나의 나로만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왔다. 쉽게 말해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 집안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와 함께 단순히 지내기보다는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나를 위해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한 발 더 생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치 있는 '지금'을 살자고 말이다. (내 생각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도 없거니와 감히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 길은 찾으면 되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일 뿐.)

또한, 현재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부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근 MZ 세대와 사다리에 관한 세간의 논쟁들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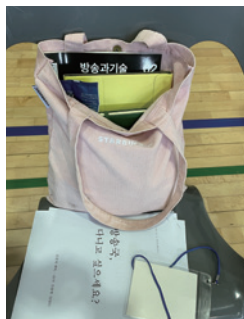
몰아세우는 느낌도 없지 않다. 그렇게 내가 같은 24시간을 200%, 300% 효과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면서 했던 고민들과 노하우들, 또 각종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싶었다. 후배들이 이왕이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걷지 않아도 되게 도와주고 싶었다. (절대 피곤하게 사는 게 정답이라는 말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풀어내 들려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시간을 허투루 아깝게 쓰지 않았다. 각 멘토가 어떤 마음과 그림으로 자신의 공간을 준비했는지 몰랐지만 적어도 나는 소소하더라도 확실한 가치를 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2번의 90분의 시간 동안 어떤 순서로 무엇을 보여줄지 미리 그려두고 그에 맞는 자료도 준비해갔다.

단순히 이야기로 시간을 때울 생각은 없었다.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말만 하기보다는 시각자료를 포함해 공감각적으로 다가가야 아이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줄 것 같았다. 또한 선배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때 후배들이 스스로 더 존중받는 느낌이 들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방송 분야에 대한 자료로, '방송과기술 잡지 2권', '방송 대본 원고 샘플'과, 내가 제작에 참여했던 '스페이스 공감 부활편 영상', '편집부의 특수편집 효과 샘플 영상', '녹음에 참여한 팟캐스트 에피소드', 내가 정리한 '방송국 직종 정리파일', '기술본부 소개 PPT와 업무분장 표', 마지막으로 '나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해갔다. 친구들이 당장 이곳에서 일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직자로서 여기에서 무슨



멘토링을 위해 준비한 자료들





IT 스타트업을 이끄는 멘토의 열띤 강의

일을 하고 이곳이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방송국에서 일하고자 했는지, 일원이 되기 위해 무슨 준비를 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후배들에게 눈에 보이는 간접 경험 공유를 통해 나의 시간을 나누어 주곤 했다.

말랑말랑한 분위기에서 열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가 주도하는 흐름이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질문과 대답이 오갈 수 있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힘주어 곱씹어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사전 질문에 답변해주었다. 중간중간 이미 이야기에 사전 질문 내용이 녹아 있기도 해서 남은 질문이 많지는 않았다.

같은 듯 달랐던 두 번째 그룹과의 시간

2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며 시작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자리는 그대로 강당에 있었는데, 식사하고 와서 자리에 도착하니 미리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너무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어서였다. ‘아니, 내가 살면서 이런 환영을 받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5명의 에너지는 꽤 환상적이었다. 한껏 업된 기분으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신기했다.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거니와 멘티들이 이 행사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전에 내가 방송과기술에 기고했던 글을 내가 소개하기도 전에 먼저 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고 잡지와 함께 설명해주려고 하는데 글을 이미 읽어봤다는 것이 아닌가! (아 그 순간, ‘방송과기술’에 기고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친구들이 읽어봤다는 글은 2020년 2월호에 실린 내가 EBS 스페이스 공감 음향감독으로 사는 일상을 담은 글이었다. 잡지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업로드되어 있어서 찾아볼 수야 있었지만 설마 봤을 줄이야. 덕분에 가볍게 내 일에 대해 훑어주고, 방송업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이야기의 흐름은 이랬다. 일단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리한 내용, PD의 하루, 제작현장 사진 등이 담겨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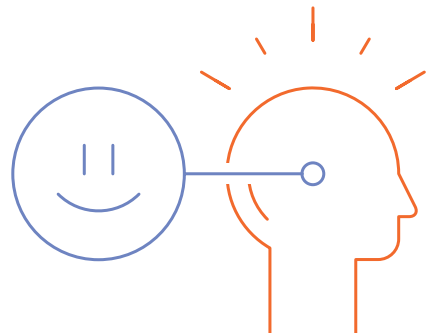
는 미리 준비한 기본 프린트 자료를 나누어주고 내 소개를 간단히 한 후, 방송국과 제작사 등에 대해 가볍게 브리핑하고 나서 보통 다들 알만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예로 들며 그 콘텐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쪽 분야에서 일하게 됐을 때의 본인의 미래를 어렵잖이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어서 영상 자료와 음성 자료를 보여주면서 잠시 쉬어갔다. 으레 그렇듯이 특수효과 영상을 보며 살짝 놀라고, 공감의 음악을 감상하고, 본인들 눈앞에 있는 사람의(필자) 목소리가 나오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신기해했다.

그다음에 내가 방송국에 입사하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필요한 역량에 대한 생각을 들려준 다음, 대학 전공, 동아리 활동, 입사 시험 준비 등 자연스럽게 나의 대학생살로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러면서 했던 활동들, 그리고 지금을 사는 내가 하는 활동들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자기계발’과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연결해 나갔다.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많이 그려보고 도전해보고 나중에 활동을 정리할 때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그 구슬들을 꿰어 자신만의 목걸이를 만들며 여러모로 나를 포장할 수 있다는 팁을 들려줬다. 매력적인 나를 세상에 내놓을수록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또, 이제 곧 고3을 앞둔 학생들로 밤낮으로 공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청춘들이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해 맛이라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나 또한 고등학생 때 그저 학교 과목 공부에 올인하느라 많은 것을 놓쳤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조금 더 열린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었다면, 또 다른 성장을 일찍부터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가끔 해봤기 때문이다. 친구들을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놀랐던 건 생각보다 구체적인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열심히 경청 중인 학생들



에너지를 담백 나누어 준 후배들



것이였다. 대개 그랬던 것처럼 나도 고등학교 댄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단순히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만 컸던 것 같다. 결국엔 점수에 맞춰 진학하게 될지 언정 미리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면 사회에 좀 더 대국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어쨌든 나와 만난 이 아이들은 영화감독, 배우, PD, 제작 관련 직업 등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줬다. 사람 앞일이야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내심 지금 꿈을 꾸준히 키워간다면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왕이면 잘되면 더 좋겠고.

멘티들은 내가 일하면서 부딪히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방송사고나 당황스러웠던 일, 가장 인상 깊었던 연예인을 만난 일 등 몇몇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며 나도 그때 생각에 피식 웃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 또 회사의 의사구조나 본인의 성향과 직업이 잘 맞을지에 대해서도 질문해줘서 나도 같이 진지한 고민을 해보기도 했다.

내 시간을 나누어 주고 나도 발전한 시간

한 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꽤나 짧은 시간이였다. 처음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해 걱정했지만 입을 떼고, 서로의 이야기를 섞다 보면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다 되어있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늘 멘토링을 마칠 때마다 추가 질문이 있거나 필요할 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나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끝내는데 사실 99%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그게 어떤 심리일까 괜히 궁금하기도 했는데 내 과거도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건 일종의 예의(?)이자 인맥 저축이 아닐까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도 조언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연락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가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 위로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말이다. 문득 이전에 만났던 나의 멘토들과 어떻게 지내왔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자리를 마무리하고 학생들은 저마다의 교실로 돌아갔다. 후배들이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 땅의 빛이 되길

방식대로 전달한 말들을 친구들이 아껴둘 요소만 걸러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기를 바라며 나는 또 다음 모임을 기대해 본다. 멘토들끼리도 간단하게 소회를 나누고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진 후를 기약하며 각자의 이동수단에 올랐다.

그리고 올라오는 동안 생각했다. 취지는 재능기부를 위해 참여했지만 이런 커다란 모임을 통해 나 역시 자박자박 나아가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조금 더 기특한 내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보자고. 늘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시간을 나누어 주는 꾸준한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지금, 바로. 당신도. 🌳